

월간 충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11 월호



감사를 생활화 하자

— 8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

황금들판으로 변해버린 곡창지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에 찬송으로 화답하고 싶다.

농부들의 피땀어린 수고의 결실이 잘 익은 곡식에서 모든 시름을 잊게 된다.

가뭄때문에 애타하던 지난날의 괴로움도 홀려 간 추억으로 변화시키는 추수의 계절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풍성한 열매는 있을 수 없고 사랑의 은총없이는 즐거움의 낙도 없게 된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허리 아픔도, 손끝의 시려움도 참는다.

병충해, 김매기, 물대주기등의 자잘구레한 농사일이 무척 어려운 것이었지만 열매를 맺는 소망 때문에 근심과 걱정,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추한 진통들을 소리없이 깨닫게 된다.

한해의 시작 첫머리에 우리는 농부들처럼 계획도 세우고, 낱자도 짊어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매일 매일 생활을 주님의 은혜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조심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구가했지만 과연 농부가 만끽하는 풍성한 열매의 결과처럼 삶의 결실(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행동으로는 예수팔아먹는 가룟유다의 심정이 아니었는지?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남을 헐뜯고 매장시켜 버리지 않았는지? 새삼스러 반성할 마음이 앞서게 된다.

풍요의 계절에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못다한 책임의식을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 × ×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다.

낮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

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한다.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주님의 교훈을 외면할 때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비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있다.

우리는 감사에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감사이전의 기본적 우리들의 믿음의 소양을 점검하고, 부끄럽없는 감사찬송을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82년도 추수감사절은 이런 의미가 담뿍 담긴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며, 은혜주신대로 받은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깨끗하게 거룩되이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물질을 바치며 짓고있는 새성전의 완공은 물론, 천국일꾼양성과 세계선교를 향한 총현의 비전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겠다.

흔히들 물질에서 얻은 이익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느냐고 하는 성도도 간혹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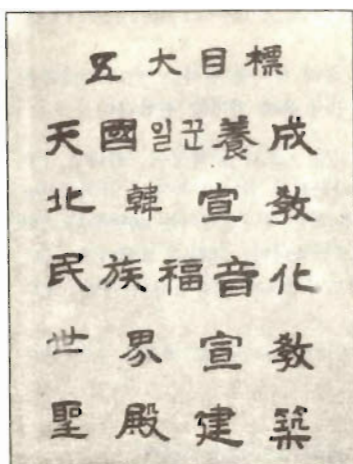
우리의 감사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먼저 내가 건강하게 태없이 지낸 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없이 지내게 된 것도 감사의 조건이다.

그뿐 아니라 맑은 공기를 주시고, 물과 바람과 사시사철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청아한 은혜이다. 이것 모두가 감사가 아닐까?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제물을 우리 주님께 풍성히 바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우리 이웃에게도 따스한 사랑의 정이 바다처럼 산처럼 전해주길 소원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저밭에 농부나가 씨뿌려놓으니 주크신 능력 내려 잘길러 주셨네, 또 사시순환 따라 흰눈과 단비를 저밭에 내려 주니, 그 사람 흰없네 우리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주신 은혜를 늘 감사드리세”(새찬송572장) **조영**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임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0권 제10호 통권104호

1982년 11월호 차례

- 권 두 언 / 감사를 생활화 하자.....손경수 · 2
□ 이달의 말씀 /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놓고.....김창인 · 4

□ 특집 · 교회성장세미나

- ◇ 교회성장의 열쇠.....곽 선 희 · 6
◇ 현대교회와 교회성장.....김 선 도 · 9

-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⑨ / 고난관
 • 고난의 의미.....김명혁 · 13
□ 성경강해 ② / 이사야서
 •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김창인 · 18
□ 지상노단 ⑤
 • 복음과 절도(완).....조영길 · 20

- 축시 / 장로장립.....김 차 생 · 17
□ 물맷돌 / 현재의 고난.....14
□ 신간안내 / 이상심리학 백과사전.....19
□ 선교사통신 /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진호.....엘리아 결간 · 25

- 선교사 · 선교지 소식.....26 교제소식.....29
이달의 교우동정.....31 교회소식.....32
11월의 행사.....34 편집후기.....34



표지설명 /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장립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로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새로 장로로써 첫발을 내딛으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스무분 장로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진은 제23대 장로장립식 장면.

□ 이달의 말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놓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의 복을 주시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날을 주세요” 민족이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40년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머슴살이로 고생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80세난 모세 영감이 꼬부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 주시오”

80세난 영감이 하는 말에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왕이 코웃음치며

“영감은 어디서 왔오?”

우습게 보았겠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열까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날, 바로 왕의 높은 콧대가 꺾어지고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마음대로 가십시오”하고 해방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하루바삐 가나안 복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손 만대가 복받기를 원하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 열두사람이 밤낮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두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믿음으로 관찰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행할 태도를 결정했는데, 다른 열사람은 믿음을 떠나서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결과 너무나 엄청난 불행이 왔습니다.

1.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애굽을 이긴 것도, 불과 구름기둥도, 홍해를 건넌것도, 40일동안 정탐하고 떠나도 잡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알았습니다.

② 가나안 복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③ 아낙 자손을 밥으로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몸집이 거인이고 힘이 천하에 장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실것을 알았습니다.

(2) 믿음이 없는 열 정탐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은 다 잊어버리고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두려워 할뿐아니라 자기의 군인을 오히려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어른들은 원수의 칼날에 죽고, 처자는 원수의 노예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돌아와서 정탐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1)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신 약속을 잊지 맙시다.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놓고

〈민13 : 21-23〉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돌이 막대기에 꿰어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민 13 : 23)

② 가나안 복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중간에 목표를 변경 맙시다.
 ③ 원수는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2) 인본주의 신자 열 정탐은,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다가는 원수의 손에 멸망할 터이니,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만일에 건너가면 그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했읍니다.

3, 어떻게 태도를 결정하자고 했읍니까?

(1)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

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② 원수는 강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갑시다 하는 이러한 태도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2) 믿음없는 열 정탐의 태도

① 백성들을 선동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고 했읍니다. 또한 새 지도자를 택하여 모세를 없애버리고 애굽으로 가지고 반역을 시작했읍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나타나셨습니다.

"12정탐이 40일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것을 보니, 이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복받을 준비가 못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지고 목적을 변경하는 일을 선동한 악독한 10정탐을 내가 처치하겠다"

그 시간에 10정탐은 벌바아 쓰러져 죽고 이 어리석은 선동에 넘어갔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 38년동안 고생을 하면서 에두기 처럼 광야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한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육지의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7족의 땅을 다 뺏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교회는 5 가지 목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29년동안 밀고 나갔읍니다.

- ① 전국일꾼양성
- ② 북한선교
- ③ 민족복음화
- ④ 세계선교
- ⑤ 성전건축

어마어마한 5 가지 일을 하는데 한국과 세계에 경제파탄이 왔읍니다. "못하겠다 힘들다 예라 애굽으로 가고말까 보다" 꿈에라도 이런 때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팔 팔을까봐 겁이 납니다. 선한 일에는 방해제도 많고 어려운 고개도 많으나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사망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영의 눈이 열려서 성공을 보고, 믿음을 가지면 말이 닦매해지고, 믿음을 가지면 행동이 충성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중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복지를 걸복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과 같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높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교회성장의 열쇠



박 선 희 목사

(소망교회)

서언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체로 7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계시받은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입니다. 결코 목사가 아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흥된 교회, 성장된 교회를 찾아가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부흥된 것은 왜 되었으며 안된 것은 왜 안되었느냐를 연구한 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통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의 반대인 진리가 있고, 사실의 반대인 진리가 있습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입장에서 진리가 진짜 진리입니다. 이 교회 성장학은 이대로가 사실입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체질에 맞고 지역사회가 비슷한, 성공한 교회 네 케이스를 잡아가지고 한달쯤 묵으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여 네 가지를 합쳐서 다섯번째 Method를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워 밀고 나가면 3년내에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이 된다...이것이 교회 성장학으로서의 사회학이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장 비결은 첫째가 제일 비중이 크며 마지막이 제일 적은 것입니다.

①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 성장의 결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②잘 동원된 평신도입니다. 교역자가 아무리 나가뛰어도 안되며 평신도가 스스로 동원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크게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평신도를 잘 동원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며, 교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동원이며, 조직 관리를 하는

것도 동원입니다. 그 결과로 하여금 그 다음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효과를 맺게하는 것도 동원입니다.

③시설입니다. 교회의 분위기, 시설같은 것도 현대인들에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④교회 기능에 대한 발란스입니다. 교회가 교육하고 봉사하고 여러가지를 하는 중에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심방만 위주로 해도 안되고 설교만 위주로 해도 안되고 경영만 너무 높여 언발란스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성장이 안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고아원도 세우고 하였지만 요즘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에서 그런 것을 경영하면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할 중요한 일이 아니며, 교회는 복음 사업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⑤동질 규합 원리입니다. 교인들끼리 문화적 채널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평하느라고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대는 다원적 문화의 사회이며 극단적 문화권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할 것이지 서로의 문화적 채널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정학적 입장에서 지교회와 있었지만 지금은 동질 문화권적 차원에서 지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⑥효과적 방법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저해대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⑦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개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나머지는 조금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는 다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교회 성장의 열쇠

기독교인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역자입니다. 마치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스데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1. 교역자의 신학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학적 분석 적용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문화 안에서의 과학적 재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같고 교리는 같으나 신학은 다를 수 있으며 또 달라야 합니다. 작가가 살아온 배경과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역자가 가진 신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학의 원리는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감정에 기울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지적인 것을 많이 넣어 수평이 되게해야 합니다. 반대로 극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일 때는 온백도 치고 화끈하게 하는 것이 균형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래 자연과학적이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부흥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오면 한국은 본래 무당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수 무당이 되고 맙니다. 이 사카니스트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나름의 신학을 구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은혜와 율법의 원리는 똑같이 균형있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무당 섬기느라고 공포에 떨고 있고 저주의식에 매여 있어 여기에도 또 율법을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비유교화하고 비사마니즘화하려면 반대 방향 즉, 은혜 편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교회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진노와 사랑, 율법과 은혜 중에서 언제나 사랑 쪽이요 은혜 쪽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기독론을 반대하고, 균형을 잃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의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회가 안됩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에 역점을 두고 기독론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케리그마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자주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며, 십자가의 부활을 많이 말하는 것은 보수주의입니다. 생애를 말하다 보면 사회, 정의, 윤리가 나오고 그것은 오늘의 윤리관에 다 맞아 들어가지 않고 실제 실천할 수가 없으니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교회 안에다가 묶어 놓았읍니다. 교회론 속에다가 성령론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교회론 없는 성령론을 말합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문맥을 연구해 보면 결론은 말씀과 성령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없이 성령 나타난 일이 없고, 성령의 역사없이 말씀의 효과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론입니다. 사도행전에 먹줄처럼 내려가는 제목은 말씀과 성령은 함께 있다. 누군가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목사이며, 말씀 전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 말씀을 떠난 성령을 생각하고 있으며,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직통하는 성령을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가 될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강대상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일주일 기도하고 설교들으면서 감동받는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교회론과 성령론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2. 교역자의 품성

맥카브란의 교회 성장학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목사는 성공하는 법이 없으며 또 정식으로 박사학위 받은 목사치고 성공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다섯 사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전문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고 문제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봉급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된다고 합니다.

교역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브릿치 알트의 사회학에서는 목회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의 태반이 유아세례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예수님은 사람은 대학생 운동에 성공하고 40이 넘어서 목사된 사람은 부흥사 외에 성공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찬 매너가 몸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 잘 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재능 목회, 수단으로 하는 목회, 이것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조직 관리를 통해서 하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며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교역자의 성품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했느냐를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100%의 탁을 말하는데 교인은 50%만 믿습니다. 교인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치고 희생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초월한 사람, 자기 이권을 초월한 사람, 심지어 자기 명예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나면 돈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안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3. 교역자의 권위, 위신

첫째로, 신사도가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말에 있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시키는 것이 신사도입니다. 교역자들은 늘 설교를 해 버릇해서 언제나 설교조입니다. 또 말이 많습시다. 대체로 말을 듣는 자세, 상대방에게 말을 시키는 자세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화제를 슬쩍 돌리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팬텀쉽입니다. 앓으나 서나 신사도에 대해서는 도통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전능자적 위치, 전문가적 권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있어서는 프로입니다. 마이크 사용에도 상식이 있어야 되고, 마이크 선택, 오디오 시스템, 울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영적 문제, 심령상 문제에 대해서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째는, 기능적 권위입니다. 목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교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

간에 있어서 대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의 입장에서는 교역자가 교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입니다.

네번째, 희생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나, 어느 정도 참고 고생을 감수하나 이것을 다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역자의 권위는 희생적 권위입니다.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희생할 때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저 분은 희생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메시지가 먹힐 리가 없습니다.

다섯째로, 교역자로서 카리스마적 권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분을 쓰신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저 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저 분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 분을 쓰신다 하는 확신을 교인들이 가질 때 목사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4. 교역자의 수용성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시간에 전하는 것외에는 수용성이 앞서야 됩니다.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 교역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자기가 성장하고 또 사람을 얻어야 이해가 넓어집니다.

조금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전도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언어로, 듣는 사람의 세계관으로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될 대상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너무 어렵고 전문적입니다. 저들의 용어, 저들의 세계, 저들의 관습, 저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세상에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5. 교역자의 리더쉽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쉽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력이란 권위가 따릅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외교관적 성격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넓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누구나 반갑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 설득력, 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일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다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관, 적극적 세계관, 언제나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있는 성격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와 교회성장

=구역관리를 중심으로=



김 선 도 목사
(광림교회시무)

1. 현대교회의 동향

오늘날 세계교회에는 네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 교회에서의 동향인데 그 첫째는 교회갱신 운동입니다. 즉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운동입니다. 교회는 부단히 새로워져야 성장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교회성장 운동입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성장해야한다—이것이 홀리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성장학파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세계에 큰 본이 되고있고 한국에는 매일 적어도 다섯개의 개척교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개인전도 운동입니다. 대중집회도 좋지만 역시 개인전도를 통해서 신자화 해야 합니다.

네째로 성령은사 운동입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가 병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들이 오순절 계통에서 시작되어, 아프리카, 동남아 심지어 북구라파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꼭 방언과 병고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적어도 25~6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현대교회의 네가지 중요한 동향인데 「하워드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2. 신학적인 재발견

현대신학 재발견의 하나는 “성서의 재발견”입니다. 최근들어 뱀엘싱서연구라든가 성서연구교제가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까닭이 바로 성서를 다시 찾고자 하는 강렬한 시사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재발견입니다.

세째로는 평신도의 재발견입니다.

이러한 동향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요인과 또 교회성장에 암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정후들을 살펴보면서 그중 “구역관리”라고 하는 것, 「스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첫째로, 성경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성경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부흥운동입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째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오도록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째로, 사회의 여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종교적인 진공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불교나 유교 그리고 그밖의 전통적인 문화가 한국교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진공상태에 놓여있었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성장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째로 한국인의 종교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러한 요소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급진적인 교회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자립선교의 원리입니다. 레디우스 박사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선교에 비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평신도의 참여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의 성장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외국교회의 성장요인

제작년 홀리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을 연구할때「피

터 왜그너]박사의 소개로 미국, 영국 등지를 순방하면서 외국의 여러 교회들이 성장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들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 교회가 실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선교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있는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총현교회는 북한선교에 대한 목표를 늘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성경중심의 교회입니다. 즉, 성경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배 출석인원이 몇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실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성경연구반 인원이 몇이나 되느냐, 장년부이건 유년부이건 교회학교 학생이 몇명인가 보고, 그 숫자를 모두 합하고 셋으로 나누어서 나온 숫자를 원교회의 실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예배 출석수는 많지만 실상 성경연구반은 불과 전체의 10%도 안되고 어떤 교회는 5%, 전혀 몇%도 안되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교회성장입니다. 교회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현교회가 펼치는 각종 성경공부의 예는 한국교회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교인이 받은 은사를 찾아내어, 가르치는 은사, 심방하는 은사, 돌보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등등 이 은사를 찾아내어 교회에 활용하게 할 때 교인들은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네째로 봉사에 열심이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로버트 슐러」목사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모든 평신도가 목사와 같은 입장에 서서 교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친절하게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봉사하는 열심은 한국교회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열심있는 봉사만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소집단조직이 잘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논제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조직이 잘되어 있어야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소집단—구역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대교회에서 하나의 파

워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교회일수록 소집단조직을 강화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의 선교적 차원이 형성됩니다.

여섯째로 교회시설이 충실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모여와도 시설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교

회는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다양해야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체육관 시설까지 해야 됩니다. 교회시설이 현대화 되어야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평신도 훈련이 잘된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훈련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디미 케리」라는 사람이 “왜 보수주의 교회가 성장하는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즉 다른 교파는 10년에 100만명씩 교인이 줄어드는데 보수적인 교



회는 왜 계속 성장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 원인을 설명하기를 “보수적인 교회는 교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성장의 요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계교회가 성장하는 공통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평신도 훈련입니다. 앞으로의 교회성장은 평신도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덟번째로 적극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강단은 부정적인 논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성황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인데 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까? 일부 신학자들이 교회부흥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됩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말해

야 합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아홉번째로 교회의 병적 요소가 없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에 병이 드는 것처럼 교회에도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병적 요소를 빨리 제거해야만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아도 병적인 요소가 교회내에 있으면 마치 암세포가 자꾸 번져나가는 것처럼 또 갈라다야교회의 적은 누룩이 교인들의 신앙에 변질을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이런 병적 요인을 빨리 제거해야만 교회가 부흥됩니다.

5. 교회의 병적 요소



교회에 병적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구역성장, 구역관리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병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시설유지 집착증이라는 병입니다. 제1,2차 대전후 유럽교회에 있었던 병증세입니다. 큰 교회를 지어놓았는데 교인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실패 공포증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장못하는 요인 가운데, 우리가 다 해보았는데 안되더라, 이것이 성장을 못하게 하는 중요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째로, 신뢰 구혈증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교인

들의 신뢰가 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큰 일을 수행할수록 목회자를 절대 신뢰해야만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째, 유명무실증입니다. 이름만 있을뿐 실속이 없는 전도회, 직분은 맡았지만 일을 못하는 장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변함없는 교회는 유명무실증입니다.

다섯째, 친교과잉증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끼여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흰 칼라를 계속하고 있으면 교인들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흰 칼라를 앞세우는 것은 "나는 세상과 등졌다"는 표시인데 그래가 지고는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구역을 나누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겨우 알아가지고 재미있게 진행되는데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안됩니다", 이미 그 구역은 친교과잉증에 걸렸읍니다. 나누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개척자 주권증 병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4~5천명이 되어도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 30~40명이 뚝뚝 뭉쳐서 "우리 교회다. 우리가 개척했다" 하면서 교회 일을 좌우하려 합니다. 이 세력이 크면 클수록 성장하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농촌교회 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해서 오래된 교회라해도 목사님의 스케일에 따라서 텃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회장 명분만 있지 실상 당회장은 그 교회의 돈많은 권사나 장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 결국 목사가 쫓겨나든가, 교회가 분열이 되든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일곱째로, 협동과잉증입니다. 협동이 지나칠 때, 이를테면 감독이 되어 전감리교를 움직이려할 때에는 개척교회의 성장보다는 협동과 협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감독직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개척교회는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협동과잉증이라는 병입니다. 개척교회가 너무 협동을 부르짖다 보면, 나이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협동해서 결혼해도 자식은 못낳습니다.

여덟번째로, 사회층별 차이증입니다. 이를테면 심장이식수술을 했을때 심장을 기증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체질이 맞지않으면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전체에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성장을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대하출신 지성인만 모였다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장사꾼만 모인다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사회층별 차이증 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아홉번째로, 동질성 응결증이라는 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복사람만, 혹은 전라도 사람만 모인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면 장로가 안된다(특히 농촌교회에서), 타지방에서 온 사람에게는 거부반응을 일으

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질성 응결증에 걸린 교회입니다.

열번째로, 지역사회 폐쇄증입니다. 지역이 시장, 자동차 부속, 빌딩이 대부분인 시내 밀집지역으로 주민은 대부분 강남에 나와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 오려면 대단히 복잡할뿐 아니라 주일저녁에는 그 지역에 교인이 없습니다. 공업화된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열한번째로, 영적발전쇠퇴증입니다. 영적 발전이 있을 때에는 아주 뜨겁게 부풀어 일어나는데 이를 지양하거나 교리적으로 억제하면 교회가 성장을 못합니다.

열두번째로, 시설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교회시설이 부족하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주차장이 없을 것 같으면 교인들이 마음놓고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열세번째로, 기구과로증입니다. 교인이 1천명일때와 5천명 모일때의 기구체제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1천명의 기구로 5천명을 다스리려면 기구가 과로해서 고장나기 쉽습니다. 이럴때는 기계도 빨리 시설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남녀선교회도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층으로 17개로 늘이고 연합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늘어나 실업인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기구과로증으로 과로에 걸리기 전에 기구를 확장 개편해야만 합니다.

열네번째로, 지도력 긴장증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을수록 목사님들에게 위임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육목사, 선교목사, 행정분야 등 분야별로 위임하여 전담하도록 하지 않으면 지도력에 긴장해서 할 수 없습니다.

6. 건강한 교회의 징후

첫째, 적극적인 지도력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에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둘째, 일치된 교회입니다. 분열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셋째, 영감있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네째, 문화에 적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여건이 다릅니다.

다섯째, 활기있는 세포가 확장된 교회여야 합니다. 구역조직이 잘된 교회가 진실한 교회입니다.

여섯째, 철저하게 훈련된 교회입니다.

일곱째, 생활로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덟째, 선교계획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아홉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열번째, 적절한 기구-기관이 잘 조직된 교회입니다.

열한번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열두번째, 생활로 연결된 성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머리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해석하는 성서연구, 그것이 진실한 교회입니다.

7. 구역관리의 실제

1) 구역의 기원

구역은 어디서 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목회중심은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것,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조직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18세기의 이 구역조직은 홀리 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4~5명이 모여서 성서연구한 것이 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크래스 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감리교의 부흥은 속회의 부흥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구역조직이 강화되지 않으면 진실한 기초를 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구역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충족을 느껴야 합니다.

① 구역예배를 통해서 소속감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② 인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③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구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 안됩니다.

④ 충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속의 여러가지 욕구가 교회에서 충족될 때 그 교인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2) 구역의 효율성

구역은 교회성장의 핵이 되어야 합니다. 핵무기인 원자탄의 핵처럼 폭발하여 퍼져나가는 하나의 핵이 되어야 합니다.

① 구역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생활을 연구하고 훈련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② 기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③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큰 교회에는 들어오기 어렵지만 스물 그룹에는 쉽게 찾아와서 적응합니다.

④ 친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⑤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⑥ 인격성장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⑦ 치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문제, 건강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줌으로 영육이 치료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역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고 난 의 의 미

— 고난의 배후에서 섬리하시는 하나님 —



김 명혁 목사

(강변교회담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믿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난의 의미,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고 체험했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그 어느 때인가 고난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치의 질병 때문에 올면서 괴로와하는 때도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탄식과 한숨을 지으면서 괴로와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대인관계로 말미암은 오해나 미움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괴로와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그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고난과 비극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할 때에 그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비극을 당할 때 우선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고 맙니다. “월대로 되라”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는 모양이야”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난의 문제를 자기가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에 난폭한 생활, 방탕의 생활을 하기도 됩니다. 심지어



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난과 비극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고난 앞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난을 짓밟고 일어선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용기와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소원한다고 했으며(골 1:24)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즉, 배고픔과 자지 못하고 헐벗음과 강도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등을 기쁨으로 자기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고후 11:24이하)

고난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 주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보통 사람이면 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을 수 밖에 없는 깊은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과 비극 가운데서도 용기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고린도후서 1장 3절~9절 까지를 살펴보면 거기 “고난” 또는 “환란”이라는 말이 한 여덟번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함께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심한 고난 중에서도 넘치는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바로 발견했고 고난의 위로를 바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고난의 의미와 위로를 5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죄악을 바로 보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허한 사람이 됩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낮아집니다. 자기 속에는 의만이 있다고 뽐내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에 “나는 죄인 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생이가 저야 할 기본적인 모습은 이 겸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 집니다.

동방의 의인 이라고 불리우던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모두 거쳐 갔을 때 욥기 40장과 42장에 보면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 얘기하던 것이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0장 3 절에 보면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에게 반박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은 골짜기

를 거쳐 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함부로 지껄었읍니다”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하던 이 욥이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에 깊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읍니다. 42장 5 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멀리 관념 속의 존재로만 보여졌는데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갈 때에 하나님이 눈 앞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구더기와 같고 티끌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 : 71)

전에는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겼지만 남의 아내를 빼어다가 간음죄를 짓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어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도 뻔뻔했읍니다. 다윗은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비로소 무서운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참회의 시가 나옵니다.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몸속에는 죄밖에 없읍니다 라고 부르짖었읍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법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회개와 겸손이 이렇게도 중합니까?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며 또 계시는 곳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이라고 했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요, 우는 자요, 회개하는 자요, 겸허한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회개와 겸손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체험했읍니다.

바울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약함과 허물을 철저히 발견했고 더 깊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읍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표현할 때 “만약 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했고(고전 15 : 8), 로마옥중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고(엡 3 : 8), 마지막 편지를 쓸 때는 “죄인 중 퍼수”라고 했읍니다.(딤후 1 : 15)

히브리서 저자도 이 진리를 체험하고 고백했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물맷돌

현 재 의 고 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는 말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긴박한 심정을 가졌는지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좀더 용감하고 굳세게 나갈 것을 격려하며, 그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부탁하고 있다.

바울은 그에게 안락한 생활을 약속하지 않으며, 오직 고난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디모데는 “예

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합니다. 여러 곳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가 “청년의 정욕”에 끌릴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 이생에서의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이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생각전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 : 18).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을 주어서 자기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어 하나님을 모시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후 1:4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보아도 마음에 눈물과 아픔의 느낌이 없습니까? 착취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아도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까? 그와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과 애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고픔의 고난, 매맞음의 고난, 동족의 저주를 받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참으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로는 위로하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일림없어”라고 중얼 거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맙니다.

정말로 고난 당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틈틈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것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나를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를 우리들이 압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는 제 했습니다. 그들

의 말 자체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리를 파악해 볼 때 그 세 친구는 욥에게 위로자가 되지 않았고 욥이 친히 말한대로 번뇌케하는 안위자, 마음에 괴로움을 더해주는 안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네 기도 많이 하게 그리고 숨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라고 타이르며 위로하는 제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말은 욥의 마음에 못을 박는 정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진정한 위로자를 만듭니다.

3.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된다

9 절에 말한대로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 9 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동안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만해질 수 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고 않고 자기의 가문을 의지하지 않고 손수건만 얹으면 병 낫는 그런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로 여길 수도 있고 그것을 똥으로 여길 수 있고 찌꺼기로 여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과 무능을 철저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은 겸손하지만 교만한 마음 그대로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실패를 통한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칠 때 사람은 비로소 교만의 껍데기를 하나 하나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

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스코트랜드에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낙스입니다. 그의 무덤에 가보면 “여기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워있다”고 쓰여진 비문이 서 있습니다. 그는 메리 여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서서 그의 신념을 당당히 내세웠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미사는 나에게서 수천 수만의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라고 말하며 가톨릭 의식을 반박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초기의 생애를 보면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때 그는 성앤드류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스코트랜드의 부패와 종교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와서 앤드류성을 함락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19개월 동안 최사슬에 매인 노예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와 원망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있게 합니까?” 그러나 19개월동안 그 무시무시한 고난 가운데서 그는 자기를 의지하던 인간적 자울 깨뜨려 버리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교회사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를 복음화 한 성패트릭도 6년동안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쫓아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손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하나 사람이 되어가고 만들어져가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그 고난의 맛을 달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소원하여 고난을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4.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진리입니다. 보통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점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더기 같이 쓸모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분의 일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될 때 기뻐하며 감격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고 야고보도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조금 몇몇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죽은 것을 몸에 껴

어지고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흔적이 주님 앞에 설 때 조금은 몇몇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영적으로 한 차원 높이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신비한 의미에서 주님이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5.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츰 온전하게 되어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한번 왕창 받아서 내가 그냥 한 순간에 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정

욕이 다 깨어지고 한번 예수에 흠뻑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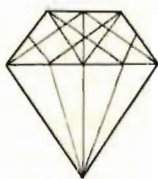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할당치 못한 생각입니다.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고난의 채찍을 맞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갔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 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같은 인생들이 한 순간에 은혜 받아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머리로는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천국에 이를 때에 지지리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몇몇하게 만드시지 위해서 고난을 채찍으로 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이 고난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생활이 되지않고 오히려 감격과 기쁨과 용기의 생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창업 50년의 신용과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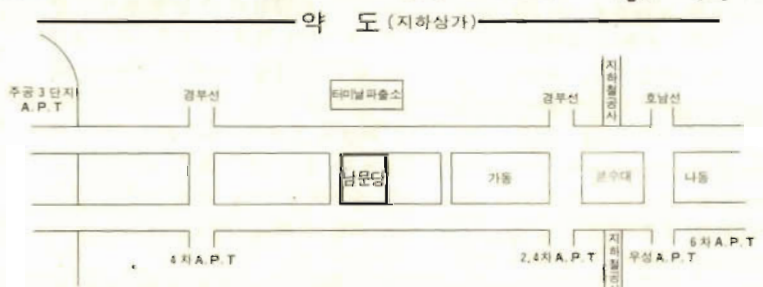
남 문 당 金正泰 집사



금 은 시 계

터미널 강남지하상가

599-3776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
 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의미 다섯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실예를 들어가면
 서 말씀을 드리면 더 실감이 있을줄
 압니다. 저의 주변에 감당하기 어려
 운 고난을 당한 젊은이들, 대학생
 들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있
 습니다. 저는 수년을 지나 보면서
 그들이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으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대학을 갓 나온 신앙심이 좋은 젊
 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짐을 느끼던 어느날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생기고 피가 계속
 나옵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면
 서 마산 요양소로 달려갔습니다.
 마산에서 떠나기 전날 저녁 그 학
 생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기도했습
 니다. 한 6~7개월전에 제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
 안과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
 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마산 요양소에 와
 있으면서 방마다 환자들을 방문하
 며 전도할 때 사람들마다 그녀의 전
 도를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려 갔던 저는 오히
 려 그녀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밖에 없었습니
 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참으로
 축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
 짜 고난을 좀 당해보았으면 좋겠어
 요!”

그녀야말로 고난의 위로를 살같이
 체험했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
 게 만드는 고난의 신비한 능력을

축시



장로장립

김 차 생 장로

(성경연구원 원감)

축 축복 많이 내리소서

총 총성스런 일꾼으로
 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교 교인들을 대표하여
 회 회중들을 이끄소서

제 제자중의 제자되어
 이 이세상을 사는동안
 실 십자가를 등에지고
 삼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 대물이어 충성하소

승 승백처럼 번지않은
 기 기독교의 전개로써
 흥 흥은모습 잘하소서

최 최선다해 주님 섬겨
 심 상급받는 그날까지
 규 규모있게 살아가소

안 안일함만 갖지 말고
 익 익히배워 진리알고
 태 태산준형 넘어가소

강 강한믿음 맘에 지녀
 모 모진고난 헤치면서
 용 용감하게 나가소서

남 남의의견 존중하며
 선 선배장로 뒤를따라
 우 우애로써 뭉쳐보세

열 열위하신 하나님께
 필 필생토록 충성하여
 성 성자처럼 살아가세

강 강한힘을 주셨으니
 은 은혜받아 충성하며
 원 원대하게 살아가소

최 최대한의 노력으로
 대 대사업을 이룩하여
 원 원한대로 기뻐하소

하 하늘나라 가는길을
 대 대대손손 짚어가서
 선 선한역사 이루소서

윤 윤택하게 은혜받아
 인 인애하신 구세주를
 현 현실속에 전하소서

오 오나가나 마음모아
 정 정성으로 열심다해
 현 현실봉사 잘하소서

정 정성스레 주님 섬겨
 광 광명찾아 기뻐하고
 호 호강스레 살아가소

서 서복풍이 불어오고
 동 동남풍이 불어와도
 석 석양까지 전도하소

김 김을매는 일꾼처럼
 광 광명천국 바라보며
 신 신실하게 일하소서

이 이세상을 사는동안
 훈 훈훈하게 사랑하소

박 박력있는 신앙으로
 인 인도하고 가꾸어서
 세 세상빛이 되게하소

서 서러워도 외로워도
 일 일사각오 견지하여
 영 영혼위해 일하소서

박 박해오고 꺾박와도
 채 채울것은 은혜이니
 용 용기갖고 나아가소

박 박해속에 살지라도
 승 승리생활 이어나가
 준 준절성도 되웁소서

최 최선다해 믿음으로
 성 성결하게 살아가고
 현 현명하신 종이되소

장 장망성을 등에지고
 로 로마순교 성자따아
 장 장래영광 바라보고
 립 입지불변 지사충성

실제로 체험한 것이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
 난 중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
 난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의 긍휼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고난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
 십을 받습니다. 고난과 환란은 오

히려 감사의 재료가 되고 간증의 조
 목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변
 하고 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도 바울 처럼 그리고 욥 처럼 찬송
 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
 에 있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
 입니다.



김창인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②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2. 배은망덕하여 반역자가 되기까지 부패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1:2)

배은망덕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사랑을 잊어버리니 반역자 밖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배반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반역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뿐입니다.

창세기 22장 17-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네 자손들이 먹고 배부르고 남기리라 네 자손들은 원수들이 손을 못대는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난 후에 다윗 임금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복을 받아 굉장히 융성

해졌습니다.

다른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걸 눈질을 할 수 없는 크고 행복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솔로몬 임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최고로 호화스러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솔로몬의 영광이라면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영화를 누린 것이, 자기가 잘나서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이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큰일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음란해졌습니다. 7년동안 성전을 짓고, 13년동안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너무 잘 살게 되니 교만이 생기고 안일하게 지내다보니 음란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몇이나 되느냐 - 천명입니다. 얼마나 음란해졌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여자들을 예쁘다고 마음대로 첩으로 얻어들이니,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첩들은 자기들 조상이 섬기던 귀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귀신당을 예루살렘 사방에 지어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하고 내버려둬서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 영광과 바꾸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순종해야 되겠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세상영화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리석게 여겨서 마침내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2. 짐승만도 못할만큼 부패함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1:3)

범죄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서 잘살도록 최고의 영광을 다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더러운 영화를 따라가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몇가지 짐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중에 까마귀는 생기는 새까맣고 주둥이는 넓적뚱뚱하고 그 울음소리는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까악 까악」 울기만 하면 「아이고 누가 죽으려나 보다」 하면서 흉조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흉조, 즉 나쁜 새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새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들이 나무에 날아와 앉을 때 엄마 까마귀가 한 가

지에 앉으면, 아들 까마귀는 그 윗 가지에 앉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엄지 까마귀가 앉은 아랫 가지에 앉지, 엄마 아버지가 앉은 나무 가지 위에 앉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앞에, 자식으로 서 조심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또 곤충 가운데 개미나 꿀벌을 생각해 봅시다. 벌과 개미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또 이 벌이나 개미는 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벌이 하루 전 이들이건 나가 돌아다니다가 꿀을 물고 돌아오면 살고, 꿀을 얻지 못한채 돌아오면 당장에 목을 잘라 죽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못사는 것이 벌과 개미입니다. 그리고 이 벌과 개미는 겨울을 위하여 여름에 준비를 미리 하는 곤충입니다.

또 독수리는 동우리를 놓고 험한 산 낭떠러지에 깃듭니다. 천길만길 절벽 밑에는 시커런 불이 구비구비 흘러 내려가는 그런 곳에 동우리를 둡니다. 그러고는 새끼를 키우는데 날 수 있는데도 새끼들이 게으름 피우면, 등에 업거나 주둥이로 물고 높은 곳에 올라가 내동댕이 칩니다. 천야만야 높은 곳에서 내던지면 "엄마! 살려줘, 엄마 어디 갔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죽게 되니까 날개를 칩니다. 거의 물에 떨어져 죽게되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업고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게 이런 훈련을 꼭 시킵니다. 아들 딸 키우는 부모들이 흉야흉야 키우면 사람답게 못키웁니다.

소는 주인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또 말은 주인의 명령이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하고 칼날이 번쩍 번쩍해도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등에 타고 "가자"하기만 하면 대포알이 떨어지거나 총알이 쏘아져도 겁없이 주인이 방향을 잡는대로 어디든지 뛰어갑니다. 범수라고 할 때까지 뛰어가는 용기를 가진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개는 주인에게 충성해서 주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것이 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악마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기 시작한 사람은 개만도 못합니다. 악마에게 유혹받은 인간은 까마귀만도 못해,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악마에게 유혹받은 인간들은 개미나 벌만도 못해서 질서를 문란케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안듣고 재멋대로 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항상 급해져야 이리 뛰고 저

리뛰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악마에게 유혹받은 인생은 욕심은 재보다 더 많고, 잔인하기는 이리보다 더 사납고, 미련은 꿈보다 더하고, 독하기는 독사보다 더하고, 음란하기는 개보다도 더 음란하고, 거역하기는 염소 새끼보다 더하고, 교만하기는 공작보다 더하고, 더럽기는 구더기보다 더하고, 연약하기는 지렁이보다 더하니 악마에게 속아 유혹을 받은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면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덤빕니다. 범죄하면 신령한 귀가 막혀서 들어야 할 말은 기여고 안듣고 듣지말아야 할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고 악마와는 친해 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버리고 카괴자 악마를 가까이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역자 악마를 가까이 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심판의 징구서를 내고 있으니,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간부(姦夫)를 따라가는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계속)

□ 신간안내

클라이드 내레모아 지음

이상심리학 백과사전

보이스사 발행 · 554페이지

정가 8,000원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상심리, 이상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인과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심리학의 권위자 내레모아 박사는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정의하여 설명하며 인간의 유행병이 된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저서인 "상담심리학"과 방송프

로 교재인 "생활인의 심리학"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치료되고 있다. 아마도 이 분야의 어느 전문가도 전세계를 통해서 그와같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한 분은 없을 것이다.

"이상심리학 백과사전"은 그중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여러번 출판되었던 내용들을 한데 묶은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책이다. 더욱이 이 책에서는 심리적인 문제의 의학적, 심리학적 측면을 인정하는 동시에 영적 원인과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과 선교

= 성경적 전도론 =



조영길 목사

(제4지구섬방)

Ⅶ. 새 신자(결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대하여 :

어린이를 갖는 것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올바른 인격자로 양육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갖 태어난 어린이들과 같은 새 신자들, 그들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고(벧후 3:18)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막 4:20)

이같은 사실은 겨자나무 비유에서도(마 13:31-32)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막 4:14-20) 분명히 볼 수 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찾아오는 결신자들을 잘 영접하여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며 양육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믿음 거르기 작업”에는 특별한 주의와 관심과 기술이 없이는 실패하고 만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새 신자들을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격자를 만드는 데는 “해산의 수고”(갈 4:19)가 있어야 하며 “유순한 유모가 어린이를 기름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 하였다”(살전 2:6-9)고 하였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 거르기 작업”에 대한 바른 정신과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일곱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마음에 받아들이는 말씀(복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막 4:15)

사단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와서 뿌리워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감시하여 지켜야 한다.

①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며(막 4:14) 심는 것이다(고전 3:6상)

그런데 사단은 새와같이 마음밭에 뿌리워진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으려고 달려든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②우리가 무관심하고 태만하여 잠잘 때에 원수(사단)가 와서 의심의 가라지를 덧 뿌리기도 한다(마 13:25).

그러므로 전도자는 근신하고 깨어서 지키며 믿음으로 원수들을 대적하여야 한다(벧전 5:7-9)

③초신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 해주며 심방하여 돌아보며 붙잡아 주어야 한다.

2.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눅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들려주어야 한다.

세상 이야기는 아무리 들려주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믿고 깨닫고 받은바 은혜를 말하고 변화된 생활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①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고전 3:1-2) 하여, 말씀의 초보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라(히 6:1).

②또한 성경을 읽고 상고케하면 믿음이 자라나기 마련이다. 베뢰아 교회 새 신자들도 그와같이 하였으며(행 17:11-12)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였고(요 5:39) 친히 성경을 읽으셨다. (눅 4:16-19)

③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꼭 새 신자부에 안내하여 등록케하고 학습반과 세례반에서 공부하도록 하여 일년 만에 세례인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과목을 알맞게 선정하여 성경 연구원에도 등록케하여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다.

3. 물을 주어야 한다(고전 3:6)

마치 화분에 심은 꽃 나무를 돌아보며 물을 주듯이 말이다.

이 물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심었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고)

아볼로스는 물을 주었다- (돌아보며 양육한 교역자)

심어놓고 물을 주면 나서 자라나기 마련이다 (고전 3:6-7)

자라나게 하시는이는 근본 하나님이지만...

① 수시로 심방하여 돌아보며 권고하고 금요 구역예배에도 참석하도록 하고 전화로도 문안하며 기도

하여주어야 한다.

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해야한다 (요 13:34).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

③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해야한다(빌 1:5). 복음 안에서(혹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서로 교제(코이노니아)해야 연합이 없으며 순수하다(고전 1:9).

④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코이노니아)이 있을 때에는 죄악도 이겨낼 수 있다. (요일 1:7)

⑤ 짐은 서로가 나누어 져야한다. (갈 6:2-5)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답답한 일 생기면 서로 내 일 같이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상부상조 하도록 해야한다(롬 12:14-18).

⑥ 서로가 화평하고 화목하여야 한다 (롬12:19히12:11-17). 절대로 다른 형제를 비방하거나 불화하거나 시기하거나 형제의 실수를 드러내어 놓고 비평하거나 형제의 막한 사정을 못본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롬13:8).

⑦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거나 절대로 "돈 거래" 같은 것을 해서는 아니된다. 순수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

로 피차 교제하며 붙잡아 주며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구제하며 서로 봉사해야 한다(벧전 4:7-11)

4.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빌 1:27-28)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의 뜻은?

①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라는 것이다. (27상)

② 서로가 협력하여 복음신앙을 위하라는 것이다. (27하)

③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다. (28)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간다고 혹시 미워하고 싫어하며 킁박하는 이가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서는 아니된다. 사단은 본래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러므로 처음 믿고 교회 나오는 이들에게는 여러가지로 사단이 시험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야 한다. (벧전 5:8-10)

5. 말씀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한다(약 1:25)

하나님의 말씀은(성경) 축복을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며(히 6:13

-18) 살아있는 말씀이다. (히 4:12)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화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①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어야 한다. (살전 2:)

②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빌 1:6).

③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다. (신 10:13) 그러므로 말씀을 꼭 한가지씩 한가지씩 생활화 하도록하여 하나님이 복 주심을 체험토록 할 것이다.

6.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도록 해야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신자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며, 감사생활을 하며 전도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며 활동하는 것이 된다 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여야 한다. (마 4:4, 요 5:39 6:27-28)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이다. 먹지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성

인삼 수삼 벌꿀도매

◎ 취급품명

- 고려인삼 • 수삼 • 홍삼제품일절
- 벌꿀 • 로얄제리 • 화분(꽃가루)
- 쌍화차 • 각종인삼차 • 각종자연식품

중부수삼센터
보성약국

전화 273-5397·267-9819

◎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이갑재 집사
한숙원 집사

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벌써 그의 영혼이 고장난 것이며 성경을 읽기 싫어한다면 영적 건강의 적신호의 불이 이미 켜진 것이다. 하루의 활동과 건강을 위하여 세 끼의 밥을 먹듯이 영혼(속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하루에 세장 정도의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

②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아니하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⑦ 항상 기도하라 (눅18:1 21:36)

⑧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⑨ 무시로 기도하라 (엡 6:18) 고하였다.

이같은 말씀은 기도의 생활화와 호흡과 같은 것을 뜻한다. 결국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십상12:23)

③ 감사생활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내용이다(골 2:7).

감사생활은 신자 개인의 믿음의 척도이다. 감사생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믿음의 경중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① 수입의 온전한 십일조 생활(말

3:10)

④ 헌물의 생활 (일반 감사) (말 3:18)

⑤ 법사에 감사생활 (살전 5:18) 우리의 입으로, 손으로, 생활로 감사생활을 해야한다.

몸의 건강을 원하는 자는 몸을 바쳐 주님의 일에 봉사할 것이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원하는 자는 마음을 바쳐 일하고, 물질을 원하는 자는 먼저 내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바를 풍성하도록 채워 주신다. (잠 3:7-10)

④ 다른 사람들(아직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하여 주어야 한다 (막 16:15 딤후 4:2).

복음은 그 본질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며 확산 되어져야만 한다. 예수 복음은 나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받아야 한다. (롬 10:13-14)

“성장”(GROW)이란 말의 네 글자를 풀이하여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서 소개한다.

Go to God (church) in prayer

(사56:7) - 교회 출석과 매일 기도 생활

Read the Bible daily (마 4:4. 요 5:39. 행 17:11) - 매일 성경읽기

Obey to God (삼상 15:22) - 순종하는 생활

Witness for christ in daily (딤후 4:2) - 매일 전도하는 생활

VIII.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히 11:6) 뿐만아니라 상선별약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롬 2:6-11)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꼭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 25:20-23)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여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크신 복을 주신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십대 축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의 복을 주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예복전문

V.I.P 양복점

안내도

조흥은행 본점

대일빌딩

삼은종로지점

광

교

호수그릴입구

을지로입구

호수다방

V.I.P 양복점

TEL. 778-1700

(조흥은행본점앞 호수그릴 1층)

◇ 중현교회 교인에 한하여 20% 할인함



듣게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전지웠느니라”(딤후 4 : 17)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전장의 복을 주시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같은 자들에게 전장의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적극적으로 권한다. 몸이 항상 약하고 병든 자가 있다면 있는 힘을 다 쏟아 전도하는 일을 해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잠 4 : 20-22, 사 40 : 31)

2.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주신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 이것은 주님의 전도자들에게 와서 거저를 함께하여 주심을 뜻한다. (요 14 : 23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겁나랴? 또한 무엇이 걱정이라? 우리 주님이 다 맡아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한없는 위로와 보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

저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Livingstone, David(1813-1873))은 바로 이 위대한 명령(The Great Commission)과 약속의 말씀을 읽다가(마 28 : 19-20)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 오지를 향하여 예수 복음을 들고 갈 것을 결심하였고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위하여 결국 목숨을 바침으로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향하여 제 2의 리빙스톤, 제 3의 리빙스톤이 되라고 부르시고 있다.

“귀있는 자는 들을진저!”

3.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므로 이적이 따르는 복을 주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이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 : 20) 제자들이 다른 것을 하므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나가서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할 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표적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전도자들에게는 예기치 못하는 표적이 일어난다. 병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도망가며(눅 10 : 17-19) 동도자와 보조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절대로 전도자가 굶거나 벗거나 조롱감이 되지 않는다. (막 16 : 17-18, 히 11 : 33-34)

4. 이 세상에서 그 누구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칭찬받는 복을 받는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 52 : 7)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 : 15)

하나님은 값 비싸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이나 꽃을 보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답도다!”라고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복음을 들고 전파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열심히 생명들을 찾아다니는 전도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전도자들이야말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마 16 : 26)이 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또 이 세상에 어디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삼상 16 : 7). 우리의 외모는 날마다 후패하고 만다(고후 4 : 16) 그러므로 겉 사람을 단장하지 말고(벧전 3 : 3-4) 속 사람, 신앙인격을 단장하며 그것도 예수 복음을 남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인정함을 받는 축복을 다 받아야겠다.

5. 참된 기쁨의 복을 주신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 10 : 17, 20하) 칠십인의 전도대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돌아 왔다고 하였다.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고 그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이 되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있겠는가?

이것은 경험하여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전혀 모를 것이다. 세상의 이런 기쁨 저런 기쁨 그 어떤 기쁨들도 전도하여 열매 맺는 기쁨보다 못할 것이다. (시 16 : 3)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 : 5-6)라고 하였다.

우리가 전도하려 나갈 때에는 어려움도 많고 피로움도 많다. 어떤 때는 핍박도 있고 욕도 먹는다. 그러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돌아오게 된다. 혹시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으리라!

6.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라”(눅10:20)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것은 구원의 확증과 보장이자다. 예수 복음 바로 전하는 자치고 지옥가는 자는 아주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 (막10:30) 구원도 영광의 구원이요, 상급있는 구원이요, 칭찬과 존귀의 구원인 것이다. 후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가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때에 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들을 구원한 자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자는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물론 예수 이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의 상급도 크겠지만...)

7.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신자들을 보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였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참 아들 된 디모데”(딤후 1:2) “아들 디모데야!” (딤후 1:18) 라고 하였고, 디도를 보고서도 “나의 참 아들 디도”(딤후 1:4)라고 하였다. 바울은 독신으로(고전 7:7-8) 일평생 주님께 헌신한 자였다. 고린도교회 신자들과 디모데와 디도와는 혈통적으로는 무관한 남이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전도자들은 피 전도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가 배분이다.

첫째는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둘째는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요, 셋째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낳아주신 전

도자요, 넷째는 지금 나의 영혼을 맡아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기도하며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목사)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을 복음으로 낳는 신령한 자녀와 후손에는 산아제한이 있을 수 없다.

8. 예수님 재림시에 우리의 전도받은 자들이 우리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을 받는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20)

예수님이 이 땅위에 다시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각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위하심이다 (계22:12). 예수님이 이 땅위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애써 전도하여 얻은 생명들이 아닌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과 영광은 바로 전도하여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실로 그렇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몇몇이 내어놓을 것이 그것 밖에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 십전 옥토에 떨어진 씨를 자라서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결실을 하는 법이다. (막 4:20)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아(막 4:14)내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시 최소한 삼십명은 전도하여 열매 맺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9.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복을 주신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의의 면류관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이다. 성경에는 면류관의 상급이 여럿이 있다. “씩지

않는 면류관”(고전 9:25) “자랑의 면류관”(살전 2:19) “생명의 면류관”(약 1:12) “시들지 않는 면류관”(벧전 5:4) “영광의 면류관”(벧전 5:4) “의의면류관”(딤후 4:7-8) 등이다. 이 중에서 “의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과 “씩지 않는 면류관”은 전도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면류관들이다. (상하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이같은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써야 할 것이다.

10. 참공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취는 복을 받는다.

“많은 사람을 올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하)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스러움을 말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멀어지며 빛을 잃을 때가 오지만(계 6:12-14) 많은 생명들을 구원한 전도자들은 그 영광의 빛을 잃거나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광채를 발하면서 영광과 칭찬을 받는 “영광의 스타”가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늘의 별들이 가을 낙엽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이 오고 있지만 이 별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결코 지지않을 것이며 또 어두워지지도 않을 것이다”(매튜 24:22)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같은 영광과 상급을 다 받아야겠다. 이상과 같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열가지 상급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았거니와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 전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한다(고전 15:58). 그러므로 전도자 바울은 이같은 상급을 얻기 위하여 쫓아간다고 하였다(골 3:14).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급들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쫓아 가야겠다(행 20:24)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신호

— 이곳 형제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



엘리야 겔간 선교사

(ELIJAH GERGAN)

진애하는 중현교회 성도여러분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먼저 보내드린 편지는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전에 서만수 선교사를 통해 보내주신 선교비는 잘 받았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는 제가 저의 한달반 동안이나 지낸 카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문들을 열어 주시는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파르카치크 부락에 다녀왔는데, 약90마일(15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해발 12,000피트 약(3,600m)나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방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대의 직물기계와 우리와 함께 일할 숙련된 직물 기술자를 구했는데 그 여자 기술자가 그 직기로 서술과 기타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두 촌락의 어린 이들에게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직기 두대가 다 수동식, 즉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잘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직물 여공 튼튼 돌마 부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여자는 불교신자 이니다만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카길에서의 주일은 그 지역에 기독교인이 없어서 우리에게서 기도와 중보의 시간입니다. '카길 회복의 집'에 있는 우리 다섯 사람, 즉 저와 제 집사람과 아론 말리크, 파르크 바트와 칼라 래드롭과 또 래에서 온 한 기독교인 간호원이 최종 전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보내는 시간은 정말 우리 모두의 정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론 말리크와 파르크 두 사람은 다 최초의 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며(한 사람은 멜리로 부터, 다른 한 사람은 카키렐에서입니다) 저는 그들과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

을 함께 나누어 왔읍니다. 그들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들 집을 떠나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돌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되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미쓰 칼라 래드롭은 이곳 선교 현지에서 우리와 함께 6개월을 지냈는데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주님께 헌신한 이분은 우리의 음식 습관, 생활 양식, 시간 개념 기타 등등 많은 다른 문화적인 것들에 놀랄만큼 짧은 기간내에 적응해 왔읍니다. 그는 카길의 한 지역에서 쓰이는 취나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언어로 신앙성경을 번역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티베트 기독교인 협의회의 연례회의가 개최될 첫번 9월은 스리나가르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 올 티베트 기독교인 뿐만아니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티베트인들 사이에도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또다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편지를 마키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김창인 목사님을 위해 축원합니다. 여기 저희와 저희의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충성된 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축복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안에서

엘리야 겔간 드림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① 정영옥선교사 사모님께서 10월 5일 오후 10시에 선교의 동역자와 친지방문 및 치아 치료와 종합진찰을 받기위해 일시 귀국하심.

10월 10~11일 양일간은 교육위원회 기도원 철야기도회에 참석하시교 10월 12~13일로 부산 다녀오심. 오랜만에 회포와 성도의 교제 풍성하시기 바라며 종합 진찰과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인교회 공동의회에서 2명의 안수집사 후보를 선정하고 내년초에 안수하기위해 교육훈련중입니다.

③ 워노끼르토 교회와 수디모로교회의 건축비 각각 1차분 및 2차분 자원.

④ 오지사역에서 장년 28명과 어린이 1명이 결신하고 5명에게 세례를 줌.

[기도제목]

① 할렐루야 선교관 건립과 인도네시아 선교부의 발전과 부흥위해.

②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 특히 정영옥사모님의 건강과 성령충만하심위해.

③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및 선교사업의 확장.

○애굽-이준교 선교사

① 카이로 한인교회 및 동산토건현장에배를 은혜중 인도함.

② 쇼부라 복음주의교회를 방문하여 야드자흐리 목사 및 성도들과 교제를 나눔.

③ 바나바의 출신지이며 바울과 바나바의 첫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섬을 9월 13일~17일까지 4박 5일간 순방하심.

④ 9월 20일 아메리칸대학에 수강신청함.

⑤ 장남 이석신군의 현지인 중학교 입학학을 위하여 교육구청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는 갖췄지만 애굽인 학생도 다 받을수없는 형편이라 정부에서 실시한 연합고사에 좋은 성적을 얻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라해도 특별대우가 없고 개학날은 다가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앞으로의 계획.

가. 애굽내에서 활동하고있는 미연합장로교 선교부, 오·엠·에프 선교등과의 협력선교.

나. 현지인 교회 유대강화, 순회전도, 현지인 교역자를 통한 학원전도, 신학생 의료장학금 지급 및 신학교 교수 지원, 사회 사업 기관을 통한 고아원 및 넘마주이촌 선교등 현지인 선교의 확대와 발전.

다. 아랍어성경 보급 및 교재지원등 문서선교의 개발.

[기도제목]

1. 자녀교육 특히 석신군 중학교 입학위해

2. 애굽선교의 발전과 확대위해

3. 선교사님 언어교육의 신속한 발전위해

○알헨티나-백 성룡 선교사

① 오랫동안 현지 소식을 보내오셨다.

② 9월중에 대집방을 실시함

③ 교육관 부지용 주택을 구입함.

④ 장년 및 가정단위 성경공부할수있는 교재를 요청해오심

[기도제목]

①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위해

②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위해

③ 원주민선교의 문 크게 열리도록

○서독-육호기 선교사

① 3/4분기 보고서를 한꺼번에 자세히 써서 보내주셨다. 특히 7월 20일~24일까지 힐더스지방에서 열린 제 6회 평신도 수양회에서 당회장님께서 부흥 성회설교를, 신성종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를, 이종윤목사님이 교회성장에 관한 강의를 담당해주시고 김희자집사 및 서수남집사의 간증과 찬양, 새벽기도회는 김성완선교사님이 동참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금식하는분이 많아져 합심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도 가지셨다. 또 물다시장이 수

양회를 위해 대형관광버스를 제공하며 동·서독 국경선을 관광하도록 시직원을 파송하고 국경선에 대한 필립도 보여줌. 또한 독일인과 미국인도 다수함께 참석하여 통역으로 은혜를 받았다.

② 8월11일 김성완 목사님과 선교전략 및 개인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음.

③ 세 한인교회의 구역 대심방을 실시하고 병자를 위해 특별 심방하고 있음.

④ 비스바덴교회는 남전도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정영섭집사, 부회장에 차범근집사등을 9월26일 주일에배후에 선출함.

⑤ 뷔츠부룩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인가 서류를 제출하고 교역자 한분 더 모실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⑥ 집을 이사하여 주소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으나 사서함은 그대로 사용하고있음.

LESSINGWEG 59
6200WI-NORDENSTADT
TEL 06122-16281

[기도제목]

① 평신도 수양회에 특별한 은혜 주시길 감사.

② 뷔츠부룩 및 프랑크푸르트 교회설립 및 개척과 새로운 선교사 계속 파송하여 유럽복음화 발전되도록.

③ 선교사님 가족의 평강과 건강 위해.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① 학습 세례식을 9월19일 주일에 거행함 세례 1인 학습 4인

② 9월12일 야외예배드림. 장년 42인 유년16인이 참석

③ 병자 심방을 했던 그 가족 전제가 3주째 교회에 계속 출석중임

한델루아

④ 성경공부가 브루셀, 루벵, 켄. 트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크게 부흥되고있음.

⑤ 대사관 2가정, 유학생 6인이 신입.

⑥ 선교사님 가족이 "언어전쟁"에 돌입하여 9월엔 불어 10월엔 화란어 시작함. 사모님, 지만, 지훈군은 불어, 지만군은 화란어까지

⑦ 차량사고에서 지켜주심 감사. 현재까지 12,000킬로를 달리며 일하시던중 9월20일 타이어펑크로 좌회전 편도 1차선 돌출부를 들어 받았으나 두어군데 경미한 멍든 것 외에 상처없음. 2주전에는 엔진까지 바꾸었으나 위험 부담이 큼.

⑧ 문명회성도들의 위로받고 감사

[기도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언어전쟁에 은혜주시서 빨리 현지어 정복하시도록.

② 차량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새로운 차를 주시고 안전 지켜 주시도록.

③ 한인교회와 구역 성경공부의 더욱 부흥과 선교의 문 크게 열리도록.

④ 병든 성도의 치료와 열매의 보존.

○일본-유병세 평신도 선교사

① 9월5일 메노나이트 여전도회 대회에 이윤호권사님 참석하여 대표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여전도회 활동을 소개함.

② 선교사님은 히로이즈미교회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권사님은 히로오교회 부인성경반 인도하시는 일을 계속하심.

③ 본국에 남아있는 자녀와 가족 식구한분 한분을 위해 기도하시며 장래 저도를 부탁해 오심.

[기도제목]

①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마시움고 또 몸 약해서 실수치 않도록, 사명 잘 감당할수있게 은혜주시옵기를

②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 식구들 주님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③ 전도의 열매 풍성하며 잘 보존되도록.

○홍콩-이만렬 엽영택 선교사

[기도제목]

① 홍콩선교부의 신속한 재건과 발전위해.

② 이만렬 선교사와 사모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및 한화 협력 선교회의 발전위해

③ 엽영택 선교사님의 마카오개척교회의 사업의 발전과 중국인의 영혼의 역사가 풍성하시도록.

○호주-김태현 선교사

① 선교사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309 STATION ST. BOX
HILL SOUTH 3128 VIC.

② 사모님 입원진단 결과 암이 아닐것으로 판명되어 11월에 종합진단하실 예정임.

③ 장남 성호군이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특별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④ 선원 선교활동을 계속하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기도제목]

① 선교사님의 선교지역의 장래를 위해

② 장남 성호군동 자녀교육위해

③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① 전도회 철야기도회를 개최하고 전교인에게 황열병 예방주사를 접종함

② 파라과이는 경제침체로 불황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선교사님 가계와 자녀교육에 심한 어려움을 받고 계시다.

③ 교인의 변동도 심하나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④ 각부 교육에 필요한 공과책과 신앙월력이 긴급함 알려오시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안정과 부흥
- ②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원주민 선교의 성공을 위하여
- ③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위하여
- ④ 파라과이의 경제안정과 교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칠레-유재일 선교사

① 10월 15일 어린이 주일을 위해 어린이 초청카드, 타월, 선물용 가방등을 준비하시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새해의 월력과 새찬송가 북음송등을 마련하시는 등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와 재정정비를 하고 계신다. 표창장 결혼증명서등 예식과 대외 활동을 위해서도 충충한 태세를 갖추시고.

② 원주민 주일학교를 위한 계획이 완료되어 원주민 교사도 3명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후 소식이 궁금하다.

[기도제목]

- ① 한인교회의 획기적 부흥과 발전을 위한 모든 준비에 주님께서 함께 하사 큰 열매주시도록.
- ② 자립태세 확립과 선교사님 가

정의 평안과 강건위해.

○본부 소식

① 박용삼 평신도 선교사님은 귀국후에 계속 고대와 신학교에 출강 나가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주교 선교부를 위해 자문해주시고 선교 계획수립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계신다.

② 10월17일 주일에는 이성근목사님과 윤영탁교수님 및 박용삼박사님을 모시고 본부의 선교 교육과정 및 교수진 구성을 위한 예비모임을 본부 오치용지도목사님 사회로 진행하여 유익한 성과를 얻음.

③ 평신도 선교인으로 수교하시는 사우디 알·지·비 현장교회의 안명수형제 및 김동표씨로부터 3/4분기 보고서 도착.

④ 10월 마지막 주일의 월례회와 11월의 총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내년도 본부 사업 및 예산 수립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칼라T.V.,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까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절.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 합 상 사

261-1188·266-9226

대표 오정현 장로
오정수 집사

각교단 총회 성료

—임원개선 및 사업계획 수립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7회 총회가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30분 군산 개복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새 총회장에 김현중 목사를 선출했다.

국내외 59개 노회에서 4백3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동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현중(수도), 부총회장, 배재운(안주), 서기 김동권(진주), 부서기 이중일(남서울), 회록서기 김기채(대구), 부회록서기 김중석(군산), 회계 정병환(인천), 부회계 심판구(전남).

한편 같은 기간에 열렸던 예장 고신측은 총회장에 서완선목사를 선임했으며, 통합측은 안경운 목사, 기장은 강명찬목사를 각각 선임했다.

또 군소 교단으로는 반고소고려측에 석원태 목사를 호헌측에 신응균목사를, 장신측에 전은찬 목사를 선출했다.

교역자 십일조 1년 더 시행

—총회회관 건립위해

총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총회회관 건립을 위해 교역자 십일조 헌금을 1년 더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그간 총회회관 건립을 삼삼동 현장에 지하2층 지상10층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곧 내부공사에 들어가 내년 총회전까지(68회) 완공할 예정이다.

동 공사 총 소요비는 약20억원이다.

37회 경찰의 날

기념기도회 개최

제37회 경찰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조찬기도회가 지난 10월11일 오전 7시30분 코리어나 호텔에서 서울 교경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해구 서울 시경국장과 교경협의회 임원, 각 경찰서 책임자 경목등 1백여인이 참석한 동 기도회는 오신주 회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동 기도회에서 이해구 시경국장은 「37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함께한 경찰이 건국당시, 공산당과의 싸움, 6.25 등을 거치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 훌륭한 일을 해왔다고 말하고 「교경협의회와 서울 경찰이 시민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선교훈련원 설립

—선교사 파송 확대실시도

총회 선교부는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동기 방학부터 선교훈련원을 개원키로 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실시케 될 동 훈련원은 장기 3년 코스와, 단기 1년 코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선교희망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또 선교부는 선교사 파송의 일환책으로 1천명이상 회집되는 교회가 1명 이상씩 선교사를 파송해 줄것을 권장키로 했다.

성경 2백만권 기증

—국제기드온 협 전국대회의 결의

한국 국제 기드온협회 제16차 전국대회가 지난 10월 8~10일까지 숙초 설악 유스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요 9:4)란 주제로 전국 35캠프에서 5백7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동 대회에서는 앞으로 2백만권의 성경책을 기증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총회유지재단 설립

—총회산하 모든 교회 부동산 편입

본총회 유지재단(법인)이 문공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 지교회 부동산을 동 유지재단에 편입키로 했다.

유지재단 설립으로 인해 각 교회의 부동산은 법적보호를 받게되며, 각종 세무관계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동 유지재단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단이사장은 이영수목사이다.

83년도 신앙월력 발행

—총회 본부에서

83년도 신앙월력이 총회본부에서 제작 발행된다.

동 신앙월력은 개교회가 원하는 대로 교회명, 담임교역자 및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달의 교우동정

"여로 돌아오니 사랑과 선행을 적리하며 모이기를 재귀는 여
 만 사람들이 승원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을 문수목 더욱 더리라"(히 10:24, 25)

10월의 새 교우

● 1 지구

상계2구역 이달수
 안암 구역 박노봉
 상계2구역 임광진
 수유1구역 이상문
 중림2구역 이상운
 삼성1구역 이화웅
 우이 구역 임규상

● 2 지구

구인2구역 추병창
 전호2구역 박화선
 봉납 구역 송영두
 답십리1구역 송한성
 홍익 구역 김택중
 석관1구역 이정복
 도선구역 신현중
 삼일구역 김진호
 강동구역 구본성
 구리구역 장용범
 줄동구역 김찬복
 황학구역 김만일

● 3 지구

창동7구역 홍원표
 성원1구역 정명길
 창동2구역 전진환
 가락구역 김인현
 성수2구역 김영선
 행당2구역 김문현
 신당5구역 허기만
 행당1구역 이현준

● 4 지구

보통1구역 정현
 금호2구역 안두너
 은남2구역 임순일
 옥정1구역 허현민
 선정1구역 김선배

● 5 지구

시흥구역 이미화
 신흥3구역 김인호
 삼도3구역 신건중
 안암1구역 강진각
 안암2구역 서상수

● 6 지구

공평1구역 김상준
 공평1구역 손학규
 마도구역 박정욱
 오류구역 임병돈
 신정구역 윤주영
 망원2구역 이순재
 영리1구역 이양희
 인현1구역 최광열

● 7 지구

북변구역 정철
 남인천구역 홍익표
 화곡1구역 이태정
 망원2구역 김종석
 신정구역 이상노

물지1구역 김문순
 모장1구역 박희환
 중부1구역 이병만
 중로구역 김옥순
 중부2구역 오영근
 창신2구역 형진택
 은자구역 이정관
 송인1구역 한영선

결혼

- 오기수군(청담3구역 선교부원)과 허순이양(용문구역 선교부원) 9월 25일
- 정준경군(봉천2구역)과 김영희(금호구역 장옥순집사 딸) 9월 25일
- 박미애양(박관영집사 변순복권사 딸) 9월 28일
- 장경수군(장석순씨 김금순집사 아들)과 박명란양(봉천구역) 10월 4일
- 김은철군(김영삼장로 손명순권사 장남) 10월 7일
- 이상문군(수유구역)과 강선희(북인천구역) 10월 7일
- 이명진군(이승국씨 임화순권사 아들) 10월 9일
- 남명자양(영아부 교사) 10월 9일

- 김일주군(중등부 교사)과 고지현양(청파구역) 10월 9일
- 이미영양(화곡2구역 조순희집사 딸) 10월 9일
- 김영순양(이영남집사 딸) 10월 15일
- 이성직군(유년부 교사 보광구역) 10월 15일
- 연구원양(연두회 심정희집사 딸 제일성가대원) 10월 15일
- 사공경옥양(면목1구역) 10월 16일
- 석완식군(박삼조권사 아들) 10월 16일
- 김규식군(윤순전집사 아들) 10월 19일
- 김만순양(김상득씨 임근애집사 딸) 10월 20일
- 임성식군(임인순씨 사임선집사 아들) 10월 20일
- 심화섭군(인현구역)과 정귀란(장충2구역) 10월 21일
- 최연우군(최병재씨 우종아권사 아들)과 손미희양(홍제구역) 10월 21일
- 김봉숙양(반포4구역 신정희권사 딸) 10월 23일

별세

- 고인화씨(장순실권사모친) 9월 16일
- 김간난씨(이에강권사 시모) 9월 18일
- 이은상박사(한남구역) 9월 18일
- 백선원씨(북인천구역) 9월 22일
- 김성만씨(김원남목사4남) 9월 23일
- 명전흙씨 10월 14일



교회소식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 - 유치부 주최

교회는 오는 21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기념예배를 거행하며 저녁 찬양예배는 유치부 주최로 찬양과 무용등 다채로운 순서를 가질 예정 이다.

제 4 차 성례식 거행

1982년도 제 4 차 성례식이 지난 달 28, 29 양일간의 학습문답, 입교 문답, 유아세례 그리고 31일의 성찬식 순으로 거행되었는데 이번 성례식에서는 61 명이 학습을 174 명이 입교및 유아, 세례를 각각 받았다.

제23대 장로장립식

강은원 집사 등 20명의 집사가 지난 10월21일 제23대 장로장립식을 거행하여 새로운 장로가 탄생했다. 이로써 본교회는 공로장로 3명, 명예장로 2명, 시무장로 64명, 협동장로 3명 등 72명의 장로가 봉직하게 되었다.

새 자동차 봉정

피택장로 20명 장립기념으로

지난달 피택, 장립식을 가진 장로님들이 장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헌금하여 「봉고 코치」 (기아마스타 제작, 2,200cc, 시가 700만원) 1대를 교회에 봉정했다.

무료진료 실시

남전도회 구제부

남전도회가 주최하고 동 구제부가 주관한 무료진료가 남전도회 지교회인 서현교회(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에서 지난 9월19일 베풀어졌다. 오태희 장로외 1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외과, 내과, 피부과,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을 통해서 주민 230명에게 진찰, 치료, 투약을 무료로 실시하여 육신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많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판문점 시찰

본교회 소속 장로 약30명이 11월 1일 (月) 오전 8시30분 교회를 출발, 판문점을 방문하고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스펠 송 웨스티발

대학부는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 제 2회 "가스펠 송 웨스티발" (Gospel Song Festival) 을 개최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주제로 Gospel, 찬송가, 자작곡(우대) 독창, 2중창, 3중창, 4중창, 복 4중창 등이 선보일 이번 축제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석하여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교회성장 합동세미나

82년도 제 2 차 교회성장 합동세미나가 지난 10월 4 일 충현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박선희목사, 김선도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이번 세미나에는 본교회 전체 교역자,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성장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83년도를 향한 본교회의 예배, 전도교육노선을 숙의하기도 했다.

산업전도회 무료진료

산업전도회 의료전도부는 지난 10월 17일 목정공원에서 중구관할 노인정, 청소과, 자활근로대원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정영옥 선교사일시귀국

인도네시아 주재 서만수 선교사 사모인 정영옥 선교사가 종합진단 및 치료차 지난 10월 5 일 일시귀국, 28일 치료를 마치고 임지로 출국했다.

성가대합창제 참가

제 1 성가대

본교회 제 1 성가대 (지휘: 이관섭) 는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제 7 회 성가대합창제에 참가하였다. 지난 10월30일 오후 3 시와 7 시 두차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동합창제에는 본교회 제 1 성가대를 비롯하여 상동감리교회 성가대 (지휘: 나인용) 은평성결교회 성가대 (지휘: 최용익),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지휘: 이동훈), 서울중앙교회 성가대 (지휘: 김창재), 서울침례교회 연합성가대 (지휘: 최인봉), 순복음중앙교회 베들레헴성가대 (지휘: 김주영), 영락교회 시온성가대 (지휘: 윤학원) 등 8 개교회 성가대가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학부모 초청좌담회

주일학교 중등부는 지난 10월24일 이귀자 교수를 강사로 "당신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가을철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편 중등부는 지난 30일 오후 6시 "시와 찬양의 밤"을 열고 자작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유치부 3부예배 승인

1부 8:50~9:40

2부 9:50~10:40

3부 10:50~11:40

※현재 주광관 420명 참석.

영아부 예배시간 변경

변경전	변경후
1부 8:00~8:50	9:00~9:50
2부 9:00~9:50	10:00~10:50
3부 10:00~10:50	11:00~11:50
4부 11:00~11:50	12:00~12:50
5부 12:00~12:50	13:00~13:50

교회소식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

①임명

제1성가대 정혜신(소프라노)

정복희(소프라노)

②퇴임

제1성가대 김석준(테너)

한영광(베이스)

2. 교육위원회

①퇴임

유치부 이경자(여) 정교사(해외이주) 초등부 김은수(남) 임시교사(직장) 정미옥(여) 임시교사((성가대겸직) 중등부 김동렬(남) 정교사(교역자로) 선교부 오신숙(여) 정교사(결혼)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주 수요일예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간격)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쳐서

광주 초월 14번을 신청

각종 통계

1982. 10. 3(매월첫주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배	I부	205	391	596	총세대수 4,532			
	II부	411	1,016	1,427				
	III부	369	650	1,019				
	IV부	173	408	581				
	V부	197	498	695				
주일	주 일 저 녁	217	333	550	신	교인	남	4,236
	삼 일 저 녁	210	340	550			여	6,149
학	어린이새신자부	20	16	36	급	세례	계	10,385
	영 아 부	241	187	428			남	2,336
	유 치 부	153	175	328			여	3,868
	유 년 부	204	226	430			계	6,204
	초 등 부	228	211	439		유아	남	652
	중 등 부	182	388	570			여	530
	고 등 부	121	267	388		교인	계	1,182
	대 학 부	71	144	215			남	316
	청 년 부	52	144	196		학습	여	440
	장 세 부 I	30	115	145			계	756
교	장 세 부 II	24	90	114	원입	교인	남	932
	장 년 부	30	296	326			여	1,311
	노 년 부	115	153	268			계	2,243
	산 업 교 육 부	21	92	113		교인	남	932
	선 교 부	19	74	93			여	1,311
합	새 가 정 부	23	55	78	황	교인	계	2,243
	합 계	3,316	6,269	9,585				

11월의 행사

◇ 교 회

1 일 / 정기당회
21일 / 추수감사주일
28일 / 83년도 제직(남녀집사권사) 임명

◇ 전도위원회

1 일 /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14일 / 남전도회 월례회
21일 / 여전도회 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8 / 전도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7, 14, 21일 / 종합행정감사(주교 16부)
28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심방위원회

7 일 / 제직회
14일 / 권사회 월례회
21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28일 / 구역권찰회의

◇ 건축위원회

28일 / 정기월례회의

◇ 자산관리위원회

21일 / 정기월례회의

◇ 재정위원회

7 · 21일 / 정기월례회의

◇ 출 판 국

7 일 / 월간 충현 11월호 발간
28일 / 정기월례회의

편집후기

◇올해에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지난 봄부터 밭갈고 씨뿌려 김매고, 때로는 가물면 마음을 졸이면서도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태풍이 불어오면 행여나 수확이 줄어들까 염려하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매년 가을마다 맞이하는 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범사에 감사 해야 하는 신조에서도 그 지마는, 실제로 우리들의 전 생활, 전 생애가 오로지 감사로 점철되어져야 한다는데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올가을에는 우리들의 생활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도한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조현명	
편집위원/	
조 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중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11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10호

통권 제104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11월 5일 인쇄

1982년 11월 7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편집부장/장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 -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

전화/274-2171 · 2172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82년도 제4차 성례식에서 유아세례를 위해 설교하는 김창민 목사.



◇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군목회의



◇ 82년도 영아부 졸업기념 촬영.



◇ 유년부실에서 모니터 컬러T.V 중계로 들려지는 2부예배모습



◇ 남전도회 구제부추침로 무료 진료중인 우기전 장로



◇ 제23대장로장립을 기념하여 교회에 봉정한 전도용 12인승 버스

하나님 “당신의 선물”의 그 영광 베푸소서



하나님 내 시야를 넓히시어
당신께서 보내신 고난을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낙망으로 짓눌려
못견디게 무서운 십자가 아니라
따뜻 모습으로 보내신 사랑의 선물로 보
게 하소서
당신께로 나를 가까이 이끌어
인내 그리고
견딜도 배워줄 그 무엇으로
보다 밝게 그길 비추어
날마다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게 할 그 무엇으로
귀하고도 순전하며 진귀하여
당신의 살핍속에 나 영원히 견고하여
그 영광의 힘 내 것임을 알게 하소서
하잘것 없는 내 뜻이 나를 버리고
당신 뜻에 녹아진다면!

이 책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